

미국계 기업 또 일방철회

US마그네틱 제2의 '피코'될 것인가

재미동포가 설립한 인천시 북구 작전동 287-1 US 마그네틱(사장 폴 김·58)이 종업원들의 3개월치 임금과 상여금을 체불한 채 조업을 중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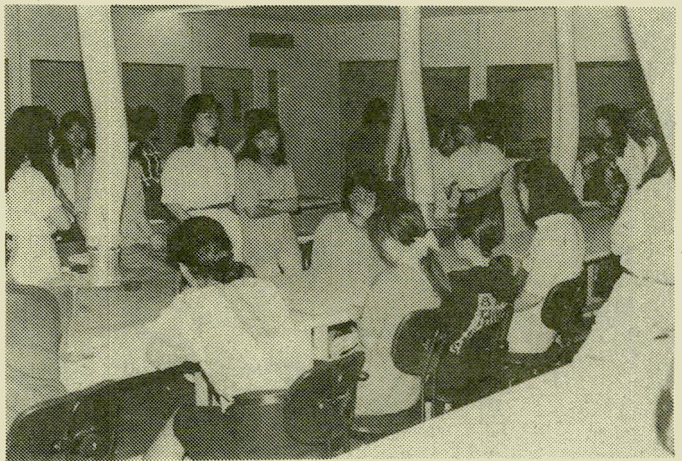
6일 US 마그네틱 노조(위원장 성현순)에 따르면 회사측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종업원 1백40여명의 4·5·6월치 임금과 지난 6월 지급예정이었던 상여금 등 1억5천여만원(해고수당과 퇴직금 등 제외)을 체불한 채 지난달 23일부터 일방적으로 조업을 중단, 가스공급과 통근버스운행을 중지하고 작업복·의료보험카드 등을 이미 거뒀다는 것이다.

노조는 "현재 US 마그네틱 공장에는 조업중단 이후에도 계속 모든 조합원이 매일 정시에 출근해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해 오고 있다"면서 이 공장 총책임자격이었던 전 전무이사 박명순(43)씨가 "지난 6월말 미국 본사로부터 해임됐으나 도의적 책임 때문에 회사에 출근, 업무를

한 뒤 체불된 임금과 상여금 등을 지불하지 않고 철회하려는 고도의 술책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상태가 방치된다면 지난해 종업원들의 임금과

사측의 부채가 많아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몰라 노조원들이 불안한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7년 미국으로 건너간 폴 김씨가 자본금 6억5천만원으로 83년 설립한 전자제품 제조·수출회사 US 마그네틱은 중소



US 마그네틱 노조원들이 회사 대회의실에서 회사의 조업중단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회사 재산성 안맞아 정상가동 불가능 노조 임금등 확보위해 건물 압류신청

보고 있다"고 밝히고 관리직원 10여명과 함께 노조원들의 출근 상황과 동향을 파악해 미국본사에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전무 박씨는 "그동안 겪었던 극심한 노사분규와 임금인상 등으로 재산성이 맞지 않아 미국 본사에서 더이상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진단, 조업을 중단하고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관리직 직원들이 팩시밀리로 한국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미국 본사에 상세히 보고하고 조합원들이 퇴근한 사이에 공장 안에 있던 나머지 제품을 미 본사로 보낸 점으로 보아 전무였던 박씨와 사전계획 아래 한국피코처럼 자연파산을 유도

퇴직금을 떼먹고 철회할 말썽이 되고 있는 미국인 회사 '한국피코'의 사태가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노조원들은 지난 5월 중순께 이 회사 사장 폴 김씨와 박 전무를 임금체불 등과 관련, 노동청에 고발하고 밀린 임금 3개월치와 상여금·퇴직금 등 3억2천여만원의 확보를 위해 공장 건물과 땅에 대한 압류신청을 인천지법에 해놓고 있다.

노조는 "지난 4일 미국 본사 부사장 이재영씨와 어렵게 통화했으나 체불된 임금 등을 언제 준다는 말도 없이 그저 주겠다는 하며 한국에서 철회하겠다는 뜻을 비쳤다"며 "그러나 한국에는 협상 상대마저 없는 데다 회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14억원을 비롯, 연체이자 및 자재대금·체불임금·상여금·퇴직금 등 부채액이 모두 18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은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발간되는 한국계 신문은 US 마그네틱이 정밀도·정확도를 인정받아 미 업계의 주문이 쇄도, 지난 3년간 연매출액이 1천만달러에 이르렀으나 최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산성이 떨어져 코스타리카에 11에이커 부지를 매입, 공장을 신축중이며 1천~2천여명의 코스타리카인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인천=김영환 기자〉